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h1>보 도 자 료</h1>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5월 22일(수) 총 3매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 당 자	• 탄소중립전략팀장 윤은주 ☎440-8591 • 담당자 김형문 ☎440-85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제8대 UN사무총장, 24일 인천시청서 탄소중립 특강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 주제로 -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인식 증진, 300만 인천기후시민 동참 촉구 -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5월 24일 인천시를 찾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역할’ 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특강에는 시민은 물론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기후위기 인식 증진과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UN 사무총장 시절인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여했다. 임기 후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재단’을 설립해 ‘보다 좋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목표로 통합과 소통, 공존과 헌신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갈등과 결핍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전 총장은 지난 2022년 유정복 시장이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한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에 참가해 축하했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속 전략을 논의한 ‘2023년 리저널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하는 등 인천과의 인연이 깊다.

인천은 국가 목표에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4대 정책 방향, 15대 과제, 154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에서 23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하고 지역이 앞장서는 기후적응을 주도하고 있다.

백민숙 환경기후정책과장은 “인천은 ‘제48차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1.5℃ 선언도시로서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탄소중립 기후시민 공동체’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탄소중립 특강을 통하여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기후시민이 되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생활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 포스터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2045 인천
탄소중립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

2024.5.24.(금) 14:00~15:30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

▶ 특강 참여 인원 400명 (선착순 입장)
▶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자 추첨을 통해 친필 서명 저서 증정



문의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9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탄소중립
연구·지원센터**